

영화의 공동감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 -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를 중심으로*

장 지 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로서 영화의 특징
 - 2) 커뮤니티 시네마
 - 3) 공동감상의 내실화와 사회적 확장
 3. 연구방법
 4. 고찰
 - 1)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
 - 2) 상영 및 감상단체
 - 3)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례 - 공동감상에서 사회적 가치창조로
 5. 마무리

* 본 연구는 張智恩 「映画文化の創造と公共上映の発展：戦後の社会教育における映画認識と普及活動の変化」(영화문화의 창조와 공공상영의 발전: 전후 사회교육에서 영화인식과 보급활동의 변화). 東京大学 博士(教育学) 博士論文, 2006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주저자 및 교신저자, jcif@hanmail.net.

요약문

본 논문은,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영화공동감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창출과정의 특징을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영상매체의 디지털화, 매체공간의 개인화가 증가한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비상업극장 및 비극장상영에서 공동감상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상환경을,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도 설립·운영되고 있다.

연구의 결과, 커뮤니티 시네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극장상영 단체나 감상단체가 시민과 협력하여 영화관을 설립·운영한다. 둘째, 공동 감상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의 대규모 연계를 통해 영화문화를 이해하고 영화문화운동에 참여할 관객을 육성하는 이론적·실천적·참여적 학습기회를 만든다. 셋째, 공동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관객이 주도하는 영화문화 환경을 정비하여 공동성을 실감하는 사회적 장을 만들고 나아가 영화와 사회문제해결을 융합하는 영화의 사회적 활용을 도모한다.

주제어

영화, 공동감상, 비상업적 극장, 커뮤니티 시네마, 일본

1. 들어가며

영화는 수백 명이 함께 꾸는 백일몽이라는 말이 있다. 영화감상은,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의 삶과 사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가상이지만, 희노애락을 공감하며 반응하는 독특한 집단과정이다.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정서에 대한 공감대도 자각한다. 더 나아가 전문가나 영화인으로부터 영화 속의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듣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관객의 이해 및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이 있으면 영화감상은 풍부한 사회적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영화의 공동감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영화가 콘텐츠를 매개로 특정의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손쉽게 콘텐츠 접근 및 향유가 가능한 OTT(Over The Top) 산업이 확장되고 나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디어 공간의 개인화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극장 발길을 멈춘 관객들의 유입에 대한 대안과 방안의 모색도 과제가 되고 있다.¹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극장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사회적 장(場)으로서의 공동감상의 의의를 자각하느냐와 관련된다. 극장상영이든, 비극장상영이든, 영화의 공동감상의 장은 고립된 개인의 의식을 사회 속으로 관계 속으로 끌어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동감상의 장의 감소는 그만큼 교류를 통한 상호학습이나 협동과정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사회적 창의성’²의 감소와도 관련될 수 있다. 물론 메타버스나 줌 커뮤니케이션처럼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러한 소셜미디어 환경이 확장되고 있으나, 오감을 가진 신체를 매개로 하여 자각하고 경험하는 ‘암묵지’의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³

1 한달호. 「OTT 시대의 극장문화와 공간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연구 - 영화관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2022.

2 김보경. 「사회적 창의성 중심의 사회과 수업탐색」, 『사회과교육연구』, 2010.

3 장지은. 「암묵지의 성인학습에 관한 사례고찰」, 『성인계속교육연구』, 2021.

필자의 다년간의 필드조사에 의하면, 공동감상은, 상업영화관에서 영화 콘텐츠와 미디어공간에 종속되는 형태로 영화문화를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관객이나 영화애호가들이 만드는 공간으로서 영화문화향유에서의 다양성, 주체성, 창의성이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관객의 육성에도 기여한다. 또한, 문화의 가치와 그 활용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여, 영화의 사회적 활용과 관련된 집단과정을 만들어 그 후과로 영화문화진흥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특히 상업영화관의 폐관으로 인해 집단적 감상환경이 사라지는 지방의 과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비극장상영이나 비영리적인 지역영화관을 통하여 공동감상의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서의 영화문화진흥이 필요하다. 지역영화관은, 도심중심으로 문화향유환경이 집적하는 가운데 문화격차해소의 과제에 대응하여 NPO영화관, 작은 영화관, 커뮤니티 시네마 (community cinema)등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왔다.⁴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소규모 지역영화관으로서의 커뮤니티 시네마는, 공동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장이 되어 있고 문화소비자로서의 관객과는 다른 관객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영화공동감상이 가지는 문화적·사회적 의의를,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 張智恩, 「NPO의 専門性強化と学習交流の中間支援組織 - 公共上映の発展とコミュニティシネマ支援センター」(NPO의 전문성강화와 학습교류의 중간지원조직-공공상영의 발전과 커뮤니티시네마 지원센터), 日本社会教育学会編, 『NPOと社会教育』, 日本社会教育. 第51集, 2007.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로서 영화의 특징

영화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몰입을 통하여 감상이 가능한 문화활동으로서 자칫 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예술문화에 비하여 인간의 지각을 역동적으로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확장성은 무엇보다도 영화라는 장르의 특징에 관련된다. 영화비평가 벨라 발라주(Béla Balázs)에 따르면, 영화감상에서 관객은, 카메라가 이동하는 지점을 따라, 스크린에서의 자연, 사회, 등장인물을 작가가 그리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⁵ 그리하여 관객은, 작가나 감독 등 누군가의 관점에 따른 어떤 사회를, 어떤 세계를 느끼고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일상과는 다른 사회를 가상으로 접하게 된다. 더 나아가 영화의 수법의 하나인 클로즈업(close-up)을 통하여,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경험하게 된다. 내면의 육체적 표출이나 그 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지각을 심화하는 것도 영화만의 특징이다.

나아가 영화는, 추상적인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의 소재 및 환경을 활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관객은 감상에서 적응이 쉽고 관객의 삶에 연결되는 소재에는 반응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하여는 비판이나 배움을 통하여 의식의 환기나 확장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한편의 영화감상은 활동적인 여가나 문화활동과 다름없이, 카타르시스와 삶에 대한 자각과 의욕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영화감상에서의 인식의 확장성으로 인하여 영화의 사회적 활용의 장으로 관객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한다.

⁵ 베라·발라주 著, 佐々木 基一, 高村宏 訳. 『視覚的人間』(시각적 인간), 岩波文庫, 1986. / Béla Balázs, 佐々木基一 訳, 『映画の理論』(영화의 이론), 講談社, 1959.

영화의 활용은 주로 교육적 활용이 많이 연구되어왔으나, 활용의 범위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교류 및 사회운동 등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화의 교육적 활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화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연결하여 모둠 활동, 강의식 수업, 인터넷 검색 활용 등을 하는 것으로서 수업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⁶ 또한, 학생이 아니어도 교육이나 훈련에서 목표에 대응하여 활용되고 있다. 영화 시청이 정신전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영화의 성격과 의도를 분석하여 정신전력과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⁷ 또한, 과거로 돌아가면 전후 빈곤 아동과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한 극장을 운영하면서 피란 도시 극장문화의 지역성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⁸ 일본의 경우, 전후 데모크라시의 학습이, 영화상영 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하여 추진된 바 있다.⁹ 이외에도 집객효과를 통하여 외지관광객의 지역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지자체정책과 연동하여 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고¹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의 이슈를 소재로 하여 사회고발적인 기능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¹¹

이와 같은 영화의 사회적 활용은, 영화가 예술문화이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 영화를 통하여 현실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사회적 맥락의 이해와 형성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이 여타의 예술문화보다 지대함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관객의 의식과 참여를 촉진하는

6 진상원. 「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영화활용 수업사례」, 『교육연구』, 47. 5-22. 2010.

7 윤수호. 「전쟁영화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 강화 교육모델 연구」, 『정신전력연구』, 2021.

8 위경혜. 「한국전쟁과 부산의 극장 문화」, 『아시아영화연구』, 2021.

9 張智恩. 「映画鑑賞の教育的活用をめぐる考察：戦後改革期における映画鑑賞を中心にして」(영화감상의 교육적 활용: 전후개혁기의 영화감상을 중심으로), 『生涯学習・社会教育学研究』, 2001.

10 張智恩. 「文化の普及と活用の社会的条件」(문화의 보급과 활용의 사회적 조건), 『文化経済学』, 2005.

11 이미숙. 「한국 민주화운동과 '행동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1970~80년대의 경계를 넘는 연대와 예술운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21.

공동감상이라는 집단과정과 그것이 확장된 사회적 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화활동의 거점이 되는 곳으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커뮤니티 시네마이다.

2) 커뮤니티 시네마

커뮤니티 시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술, 정책, 사회운동에서 확실히 정의된 바 없으나 대안상영운동의 일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상설극장이 아닌 공간과 장소에서의 영화상영, 제작-배급-상영이라는 영화산업 구조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영, 그리하여 비상설극장에서의 상영이거나 비산업적 상영을 의미한다.¹²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속에서 영화감상환경이 도심에서는 멀티플렉스(multiplex)와 미니시어터(mini theater)가 생겨나지만 지방에서는 영세영화관이 폐관하는 가운데 심해지는 문화향유에서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며 등장한 작은영화관, 지역영화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지역극장의 쇠퇴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작은영화관 사업을 본격화했다.¹³ 그리고 ‘작은영화관’을, 지역영화향유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영화관으로 정의하고, 공연법 상의 공공 공연장 개념을 빌려와 ‘공공상영관’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⁴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도 위와 같은 한국과 유사한 과제에 대응하며, 동시에 대안적 상영을 포괄하는 소규모 영화관으로서 NPO 영화관, 시민영화관 등으로 불리우며 지역에서 양질의 영화감상환경을 만들며 영화관

¹² 전병원. 「한국 커뮤니티 시네마 특성 연구 : 한국대안상영 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O), 2022.

¹³ 김선아. 「한국 지역극장의 현황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운동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015.

¹⁴ 함주리, 김경표, 정민화. 「작은영화관 조성과 운영 매뉴얼(2016년개정판)」, 영화진흥위원회. 2016.

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참여적 문화활동,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곳이다.¹⁵ 이와 같은 공설공영, 혹은 공설민영으로 영화관이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우는 단순히 상영뿐만 아니라 교육적·문화적, 나아가 경제적 기능까지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선진사례에서도 발견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1913년 영화관법 성립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은 시의회 또는 의장의 권한을 부여한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영화관을 소유하여 운영한다. 영화관의 공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영화 및 영화관에는 교육적 기능과 문화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고방식이고 영화관의 수익도 다른 문화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¹⁶ 이러한 방침은,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시네마의 형태는 공설공영, 비영리조직(NPO), 미니시어터, 상영조직 등 다양하지만, 영화상영이나 감상을 사회의 공공적 가치와 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통하고 있다.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문화활동을 공유하는 '장(場)'에 대한 주목이 보여진다. 가네자와 사토시(金澤智)¹⁷는, 집단을 구성하는 요인은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 등의 실제적 장을 가지지 않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연결되지만 그것은 문화현상의 다양성이 지역사회가 문화에 대하여 깊어지는 역할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하며, 문화적 영위란 개인의 고독한 활동이 아니라 집단에 의하여 공유되기 위한 장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장(場)의 중요성을, Condry(2006)¹⁸의 논의에서도 제시된 것 같이 문화를,

¹⁵ 張智恩. 2007. 앞의 논문.

¹⁶ 石垣尚志. 「地域の文化資源としての映画館の役割—ノルウェーの文化政策と映画館を事例に—」(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영화관의 역할-노르웨이의 문화정책과 영화관 사례), 『地域活性化学会 研究大会論文集』, 2020.

¹⁷ 金澤智. 「文化の創造の〈場〉としての地方都市—高崎の映画産業(1)—」(문화창조의 〈장〉으로서의 지방도시-다카사기영화산업(1)). 『高崎商科大学コミュニティー・パートナーシップ・センター紀要』, 2017.

¹⁸ Ian Condry. Hip-Hop Japan - Rap and Paths of Cultural Globalization, Duke

콘텐츠 산업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공급되는 곳이 아니라, 아티스트, 청중, 다양한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이해의 필요성은, 커뮤니티 시네마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의 다양성에서도 발견된다. 즉 영화라는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시어터라는 환경을 선호한 사람들, 이러한 공동의 장에서 인간관계나 사회참여의 계기를 찾는 사람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교차할 수 있도록 장의 역동성에 개방성을 가지는 것은, 관객으로만 머물다 돌아가는 상업영화관과의 차별성을 만드는 특징이다.¹⁹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커뮤니티 시네마는, 특별한 미디어 공간이 가지는 장의 질적 가치와 그 사회적 확장성을 증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공간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communication media)와 스페이스 미디어(space media)로 분류한 다무라 노리오(田村紀雄)²⁰의 논의를 빌려오면, 스페이스 미디어가 강하게 작동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무라는 커뮤니티와 미디어를 융합한 개념으로서 일정의 지역사회를 범위로 하는 통신미디어를 제시하는 가운데 커뮤니티 미디어를, 메시지 전달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특징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장으로서의 스페이스 미디어의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지역광고매체, 케이블TV, 커뮤니티 FM라디오 등으로, 후자를 도서관, 공민관, 광장, 클럽 등으로 지칭하였는데 커뮤니티 시네마는 메시지의 전달매체로서의 영화미디어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감상이 활성화된 장을 즐기는 스페이스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공간에 대한 애착에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호감을 넘어 사회적인 구성개념(사람들과의 관계성, 연결고리, 참

University Press, 2006. 이 논문은 위의 金澤智, 2017에서 재인용함

¹⁹ 堀越 まい, 佐藤 将之. 「コミュニティシネマにおける参画の様態からみたまちの居場所」(커뮤니티 시네마에서의 참여의 양태에서 본 마을의 쉼터), 『ジャーナル フリー』, 2019.

²⁰ 田村紀雄 「地域メディアの社会理論」(지역미디어의 사회이론), 竹内郁郎·田村紀雄 編著, 新版·地域メディア, 日本評論社, 1989.

여 등)이 포함되고 나아가 그 공간에서의 성장체험과 즐거운 긴장감 등을 통하여 일상이나 사회활동에의 긍정적 에너지를 경험하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²¹

이와 같은 장이 유발하는 이점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시네마 이용자는, 관객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영화감상에서의 좋은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새로운 능동성을 발휘한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은둔형외톨이나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에게 외출이 있는 삶을 만들어 사회와의 접점을 제공하는 것도 그러한 일례이다.²² 그리하여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 내는 가치는 한편에서는 양질의 영화문화와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관객의 육성에 기여하는 점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문화를 매개로 한 여타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 시네마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극장의 부활을 통해 관련 문화와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지역재생, 지역과제해결 등과 같이 외재적 성과에 주목하고 있고²³ 그러한 사회적 성과의 기반이 되는 내발적 토대로서의 공동감상의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공동감상의 내실화를 경험하며 형성되는 관객의 주제적인 문화적 성장 없이 커뮤니티 시네마가 영화의 사회적 활용에 주력한다면, 활용하는 측의 목적이나 외재적 자원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의미있는 공동감상이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로부터 관객의 사회참여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내발적 변용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1 對間昌広 (ほか). 「場所への愛着に関する諸概念の尺度の相互関係」(장소에 대한 애착에 관한 제개념 척도의 상호관계), MERA, 第 43 号 Sep. 2019.

22 青山大蔵. 「社会的付加価値を創出する映画館」(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영화관), 『季刊 政策・経営研究』, 2016.

23 박동호.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 후카야 시네마(深谷シネマ)를 중심으로 -」, 『예술경영연구』, 2019.

3) 공동감상의 내실화와 사회적 확장

전술한 것 같이 영화는 사회적 소재를 가지고 추상적인 상징보다는 현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므로 관객은 영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지각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관객은, 일상의 협소한 경험에서 벗어나 픽션이지만, 발라쥬가 말하는 것 같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혼’, ‘공간이 가지는 극적인 힘’, ‘군중의 다양한 리듬’, ‘침묵하고 있는 존재에 숨겨진 언어’ 등과 같이 사각의 앵글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현상을 자각하게 된다. 나아가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한 생활양식, 사회양식을 구체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자각할 기회가 얻는다.²⁴ 그리하여 이러한 특징을 직접 교육에 활용하기도 하고 관객의 변화를 유도하여 다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몰입을 통하여 영화 콘텐츠를 이해하며 따라가는 집중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한 거리두기 의식을 완화하면서 영화 속의 정보를 성찰없이 내면화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자아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의 취약성에 주목하여 일찍이 가미야마 준이치(神山順一)는 영화의 교육적 기능을 ‘절반교육(半教育)’이라고 명칭하였다.²⁵ 요컨대 감상영화 그 자체에 대한 재해석의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감상이 이루어질 때만 온전한 영화의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야마다 가즈오(山田和夫)도 이와 같은 공동감상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여 공동감상을 활용한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은 천차만별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받은 즐거움이나 감동을 공유하는 것은 유익하다. 나아가 이러한 감상과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불명한 점에 집착하여 관련독서나 자료조사로 발

²⁴ 張智恩a. 「映画の共同鑑賞における共感の知覚化」(영화의 공동감상에서의 공감의 지각화). 佐藤一子編著. 『生涯学習がつくる公共空間』, 柏書房, 2003.

²⁵ 張智恩, 2003a, 앞의 책에서 재재인용.

전하는 계속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²⁶ 장지은(張智恩)은 이러한 의도적인 영화감상에 대한 관여방식을 가르켜 ‘학습적인 어프로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학습적 어프로치가 필요한 이유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조직된 정보 등을 사회적, 역사적 사실에 조회하여 사실과 표현의 간극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사회이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동감상에서는, 영화의 사회적 읽기를 풍부하게 하는 사회적 역사적 증인들의 이야기가 수집되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다양하게 음미할 수 있어 영화는 관객의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학습미디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²⁷

한편, 공동감상이 역동적인 학습의 장이 되는 것은, 관객의 수행성과도 관련된다. 관객의 수행성은, 콘텐츠를 매개로 즐거움을 창출해 내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관객의 문화적, 사회적 성장을 끌어내는 교육의 관점에서는 자크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해방된 관객같이, 관객이 내면을 기반으로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매개로 하여 작가의 의도를 고민하고 기존의 것을 변이시키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행성이 요구된다. 또한 트랜스 미디어의 향유에 있어서는 자발성, 개방성, 참여적 수행(performance)이 중요하다.²⁸ 이와 같은 수행성은 인터랙티브영화(Interactive Cinema)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선택지를 고를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발생하는 능동성, 자율성에 관련지어지며 비로소 관객의 향유와 성장에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²⁹ 공동감상에서 관객은 일방향성의 영화에 몰입되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감상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영화이해의 다양성을 음미하고 관련 현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그 맥락적 이해를

26 山田和夫. 『映画で世界を読む』(영화로 세계를 읽다), 新日本出版社, 2001.

27 張智恩, 2003a, 앞의 책

28 권호창. 「트랜스미디어 향유와 문화정치적 관점에서의 대안적 수용자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Trans-(트랜스-)』, 2021.

29 김지연, 김도균, 권호창. 「인터랙티브 영화는 21세기의 새로운 서사극이 될 수 있는가? : <블랙미러: 밴더스내치>를 중심으로」, 『Trans-(트랜스-)』, 2022.

심화한다. 이러한 능동성과 자율성이 관객의 수행성을 통하여 나타날 때 커뮤니티 시네마는 공동감상의 내실화를 통한 관객의 육성에 기여하고 수행성의 점차적인 질적 변화를 통하여 관객의 영화시민으로의 변용에도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가 공동감상에 주목하여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를 고찰한 이유는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성립의 토대로서 수십 년간 공동감상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며 사회에서 양질의 영화문화보급에 주력하여 온 영화감상단체와 상영조직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커뮤니티 시네마는 다양한 사회적 성과에 연결되는 영화관 활동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영화관 활동의 전제로서는 공동감상과 그 사회적 확장이 경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전후 감상단체 및 상영조직의 공동감상의 진화에 주력한 사례를 분석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다양한 비극장 상영에 연계되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커뮤니티 시네마의 영화관 활동을, 그 내재적 과정으로서의 공동감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관 활동의 외연확대의 연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커뮤니티 시네마로서 지명도를 얻고 있는 후가야시네마(深谷シネマ), 그리고 다가사키(高崎)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후가야시네마)는 저자가 2000년대 초까지 현장연구를 해오던 필드이나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근년의 현황을 문헌연구와 신문기사, 그리고 영화관 사이트 등을 열람하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이후에는 먼저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에 대한 개요를 토대로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겠다. 그 다음에는 감상단체의 역사적 전개에 고찰을 통하여 공동감상의 질적 변화를 도모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공동감상의 경험과 그 사회적 확장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표 1>에서와 같이 관객이 공동감상을 통하여 점차 사회참여적인 영화시민으로의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공동감상활동의 질적 변화를 명료히 한다. 즉 관객의 수행성이 공동감상의 단계와 참여적 실천적 단계로 발전하는 연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 표 1 | 관객의 수행성의 변화

공동감상단계		수행성의 질적 변화 ⇒ ⇨	참여적 · 실천적 단계
반응적 수행성	학습적 수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및 향유 - 콘텐츠에 대한 반응 - 공동감상의 장(場)에 대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교환에 따른 성찰과 다양성의 발견 - 패널리나 영화인 토크를 통한 비판적 이해 - 영화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감상환경의 사회적 확장 - 영화문화개선을 위한 활동참여 - 영화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에의 참여 - 새로운 활동의 창조
학습자로서의 관객			실천가로서의 영화시민

4. 고찰

1)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

일본에는 공동감상을 촉진하는 사회적 문화적 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필름라이브러리 및 아가

이브, 미술관, 지역형 영화관, 공공홀, 영화제, 자주상영단체, 도서관, 학교 등, 지역의 영화문화·영상문화를 깊어지는 조직이 회원이 되어 구성된 것이다. 주로 상영지원활동과 영상교육을 통하여 영상작품의 다양성의 확보와 양질의 감상조건을 창조함으로써 예술문화의 진흥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4년에 설립된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센터를 2009년에 개편하였다(JAPAN COMMUNITY CINEMA CENTER <http://jc3.jp/wp/about/>. 2022.12.2 검색).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의 등장은, 전후, 영화감상단체, 지역의 미니시어터 일명 시민영화관³⁰, 영화상영조직 일명 영화센터³¹, 그 외 문화홀의 영화상영 등 비상업적인 취지로 지역문화활성화³²나 문화격차의 해소등의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며 상영조직을 운영하던 단체나 기관을 규합하여 만든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로부터 비롯된다. 1994년 일본의 문화청의 산하 기관으로서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추진협회(에스·재팬)가, 1996년에 공공적인 영화상영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장(場)으로서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하여 상영활동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지역 간의 감상환경의 격차등의 문제가 다루어지며³³, 공공상영조직으로서의 커뮤니티 시네마 개념이 제창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 국제문화교류추진협회는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전술한 것 같이 2009년도 에스·재팬으로부터 독립하여 일반사단법인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가 되어 있다(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 사이트 검색, 2022, 12. 20).

30 張智恩b. 「日本における市民映画館の台頭と展開」(일본에서 시민영화관의 대두와 전개), 『映像学 : Japanese journal of image arts and sciences』, 2003.

31 張智恩. 「社会教育における映画の普及と活用 : 1970年代以降の映画センターの活動に限定して」(사회교육에서 영화의 보급과 활용: 1970년대 영화센터활동에 한정하여), 『生涯学習・社会教育学研究』, 2002.

32 張智恩. 「文化創造のネットワークと地域活性化の可能性」(문화창조의 네트워크와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 『関東都市学会年報』, 2004.

33 岡本健一郎. 「映画芸術の振興のためには「上映」と言う「出口」のところへの支援が必要」(영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상영'이라는 '출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 『シネ・フロント』, 第323号, 2004.

1996년부터 에스·재팬에 의하여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는 전국을 순회하는 형태로 매년 개최되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비영리적인 상영활동을 하는 관민의 제 단체가 모여 공공상영에 대한 전국의 현황이 보고 되었다. 그리고 2002년 기후(Gifu)에서의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에서 외국의 공공영화관과 일본의 시민영화관(*미니시어터 형태로 영화관이 없는 과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관)의 성격이 포괄되는, 지역에서의 커뮤니티의 형성을 촉진하는 영화감상환경으로서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하는 개념이 에스·재팬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일본의 전후 비극장상영사를 정리한 張智恩³⁴에 따르면, 여기에서 커뮤니티 시네마의 정의 및 성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커뮤니티 시네마란, 첫째, 불특정다수의 영화감상자가 관객이던 기존의 상업영화관과 달리, 특정의 아이덴티티나 관심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발산을 목적으로 한 상영이나 기획 등을 우선하는 영화관이다. 둘째, 커뮤니티에 대하여 상영이나 기획사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장(場)으로서 기능하는 영화관이다. 셋째, 상영을 행함과 함께 영화인이나 전문가와의 토크쇼나 심포지움, 영화제 등의 개최, 영화관 속에 카페나 로비, 자료관의 운영 등 공간적인 플래닝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형성이나 발전에 기여하는 영화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영활동에 공적지원이 필요한 이유로서 1) 항상적인 상영활동의 보장, 2) 수익 리스크가 있는 영화 및 영상작품에 대한 손실보상 3)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균등한 접근의 보장 4) 토크나 워크숍 등의 항상적인 개최를 통한 교육적인 사명의 실현 등이다.

위와 같은, 커뮤니티 시네마는 기후(Gifu)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를 통하여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더욱 분명히 하게 된다. 첫째, 영화의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비상업, 비극장상영단체로서의 공공상영의 흥행조합

34 張智恩. 「映画文化の創造と公共上映の発展：戦後の社会教育における映画認識と普及活動の変化」(영화문화의 창조와 공공상영의 발전: 전후 사회교육에서 영화인식과 보급활동의 변화). 東京大学 博士(教育学) 博士論文, 2006.

이라는 성격이다. 요컨대, 상업영화관에서 개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상영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화유통에 기여하는 점이다.

둘째, 종래의 다소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비극장상영, 요컨대 공공도서관이나 문화홀 등을 통하여 공적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제도환경에서 보급된 축과, 상영조직을 만들어 양질의 영화를 보급하려고 하는 자주상영단체 혹은 감상단체의 비극장상영을,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하는 범위에서 지원대상으로서 통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고에서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영화보급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네트워크화한 조직으로서 커뮤니티 시네마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커뮤니티 시네마는 건물 영화관이라고 하기 보다 공공상영에 관련되는 다양한 단체로서, 미술관, 공공홀, 공민관(사회교육시설), 도서관, 학교, 영화상영조직, 자주상영단체, 시민영화관 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네트워크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구축되었다.

셋째, 지역과 전국적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커뮤니티 시네마 성립 전에 영화문화운동으로 추진되어 온 비극장상영조직 및 단체와,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기관에서의 영화상영이 서로 만나는 비극장상영의 통합의 길을 연 것이다.³⁵ 이러한 배경에는 영화산업의 사양화를 막기 위하여 커뮤니티 시네마가 공공상영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에서의 영화유통의 거점이 되어 상업영화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장상영의 조건을 향상시키어 영화감상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사회시스템을 상정한 측면도 보인다. 이러한 맥락은 당시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센터의 규약에도 상세히 표명되었다. 요컨대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센터는 그동안 에스·재팬이 실시하여 온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의 성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일본커뮤니티 시네마 센터 사이트 참조, 2022. 12. 24).

³⁵ 張智恩, 2006, 앞의 논문

| 표 2 |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업

1	지역에 근거한 공공상영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만들기
2	영화유통시스템의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영화예술·문화의 보급과 진흥, 영화영상교육실천
4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설립이나 그러한 활동지원
5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상영단체에 대한 공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
6	상기의 모든 활동의 수행시,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추진

현재 등록된 전국의 정회원 단체는, 75개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유형은 <표 3> 과 같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네마가 하는 사업은 <표 4> 와 같이 확장되어 왔는 데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공동감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향적 영화문화활동이다.³⁶

| 표 3 | 2022년도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회원 현황

유형	영화관	상영단체	영화관전문시설 및 미술관, 자료관등	영화제	배급회사
개수	42	6	12	5	3
유형	이동영사	공공홀	시네마테크	그 외	*전체
개수	1	1	1	4	75

³⁶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홈페이지 <http://jc3.jp/wp/about>

| 표 4 | 2022년도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의 프로젝트

전국커뮤니티 시네마회의	워크숍/육성사업	FILM COLLECTION 特集上映/ 巡回企画	RESEARCH& REPORTS
전국 각지에서 영화 상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 교환과 연구 보고, 그리고 토론회의 모임	상영자 육성을 위한 강좌 및 워크숍, 「시네마 매니지먼트 워크숍」, 「영사 기사 워크숍」, 「아트 매니지먼트 워크숍」, 관객개척 프로그램 등	상업적으로 상영될 기회가 없었던 중요한 작품을 모은 다양한 특집 상영을 기획 개최, 전국에 순회	공공상영 활동에 관한 조사 등, 영화 상영 활동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
F시네마 프로젝트	시네마 에일!!	시네마테크 프로젝트	미니시어터 네트워크
필름기반의 상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구축, 필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개설, 필름의 매력 전파	영화상영으로, 재해지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재해지의 부흥에 협력하기 위해 상영회 실시	영화아카이브나,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미술관 등의 문화 시설이나 공공영화관 등, 공공적인 영화 상영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에서의 순회상영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 회원이 운영하는 전국 영화관(미니시어터)의 네트워크 사업. 배급 및 상영 장비의 디지털화 추진 사업과 정보 공유, 회원 상호 할인 서비스 실시

2) 상영 및 감상단체

① 영화서클협의회

일본에서 비영리적 영화상영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하여 왔다. 전후사만을 보더라도 전후초기부터 일본영화를 비극장 상영으로 보급한 영화서클협의회³⁷, 1980년대 지역에서 명화극장이 없어 지자, 시민이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미니시어터로서의 시민영화관, 지역

의 영화애호가들이 영화인과 연계하여 개최한 다양한 영화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영화상영 등이 그 예이다.

현재 전국각지에 있는 감상단체 및 상영단체 중에는 1960년대를 통하여 지역에서 영화감상단체로서의 성격을 확립한 조직이 많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영화는, 미점령기에 CIE교육영화가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프로덕션의 제작지원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전국적으로 관객과 영화인이 연계하였다. 이들은 감상기회의 확대와 사회적 의식의 고양에 영향을 미치며 상업영화에 대한 저항적인 영화제작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서클이 저렴한 감상을 목적으로 하여 영화할인권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영화서클협의회이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면, 영화서클협의회는 상영조직 및 감상단체로서의 활동방향과 사업성격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재에까지 이르는 영화감상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1960년대 들어와 일본영화의 급격한 쇠퇴 속에서 제작편 수와 추천할 양질의 작품이 감소하는 가운데 영화서클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할인권의 제공이나 일반영화관 영화 중의 감상작품의 제공이라는 소극성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인 회원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클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1966년도부터 '소극장예회'를 실시하는데 일반상업영화관에서 영화상영이 끝나면, 회원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리퀘스트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소극장예회를 통하여 교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16미리, 혹은 35미리 영사기에 의하여 상영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소극장예회를 통하여 자주제작영화, 명감독의 영화, 영화사에 남는 명작 등을 상영하여 서클회원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1974년에는 제14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감상단체로서의 방향확립을 다음과 도모하였다.

37 예를 들면, 교토영화서클협의회편, 『교토영화서클협의회 50년의 발자취』, 1999.

첫째, 근로자영화협의회, 근로자음악협의회, 근로자연극협의회 등의 단체 회원이 주된 영화서클협의회 회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개인회원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다. 둘째, 감상활동의 의의에 주목한 것이다. 영화서클협의회는, 개인회원의 인정과 함께, 감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광범위한 영화감상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수립하여, 단체명칭을 변경하면서 영화문화운동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영화를 통하여 사회와 인간에 관하여 생각하고 교양과 정조를 높이며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자는 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온 근로자영화협의회(노영)로부터, 학생, 부인 등 광범위한 시민층을 조직하여 가는 문화운동체로의 이행을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규약에서도 “근로자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게 된다.

이외에도 영화서클협회의의 감상단체로의 발전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비평활동의 활성화이다. 예를 들어 고베(神戸)영화서클협회의의 사례를 보면, 영화와 비평의 모임을 별도로 결성하고 작가, 평론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영화를 논의하는 활동을 가져왔다. 둘째, 예회의 중심이다. 즉 이전에는 상영이 종료된 일반영화관의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자체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시민영화극장을 운영한 것이다. 1970년대 영화서클협의회는, “정말로 우수한 영화를 보고싶다. 진정한 예술을 계속 보고싶다고 하는 요구를 충족하고 영화를 보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작품선정기준에서도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사회의 진실을 옹호하고 새로운 세계의 태동을 보여주며, 건강하고 순수하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는 점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고베영화서클협의회는 이러한 취지로 매월 1회 시민영화극장을 1995년 고베 대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왔다.³⁸ 그리고 2023년 현재도 월례 상영회와 학습회는 계속되고 있다(고베영화서클협의회 사이트: <https://kobe-eisa.com/>, 2023년 1월 검색).

³⁸ 張智恩, 2006, 앞의 논문

② 영화감상과 학습

전술한 것 같이 영화서클협회의 많은 경우, 근로자영화협의회(노영)를 전신으로 한 단체가 많다. 이러한 영화서클협회는, 1950년대 영화전성기에는 영화상영 가이드 역할, 영화사양기로 내딛은 1960년대에는 비평활동에 근거한 소규모홀상영, 1970년대에 들어가면, 영화상영조직 및 감상단체로서 일반시민회원을 점차 확보하여 간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단체들은 문화활동으로서의 영화감상활동의 내실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미즈(淸水)영화서클협회의 경우, “영화를 통하여 일본문화교양을 말함과 동시에 세계영화로부터 문화를 배운다”라는 방침을 수립하였고 다른 영화서클협회에서도 영화를 애호하는 광범위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좋은 영화를 저렴하게, 나아가 보다 좋은 조건에서 감상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 하에 영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회, 학습회, 감상회를 여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의 각 영화서클협회를 전국적으로 연계한 단체로서 전국영화감상단체 전국연락회의(전국영연)가 1966년에 발족하였는데 이 전국조직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감상단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 행사하여 왔다. 첫째, 우수영화의 선정과 장려 그리고 감상 및 보급활동을 하였고 둘째, 전국적 학습교류의 장으로서 「영화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의 영화문화를 짚어준 전국영화서클협회의 동료들간의 학습 및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영화 베스트텐을 선정하고, 넷째, 기관지 및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을 전국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역 및 사회의 영화감상문화 및 관객의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영화대학은, 1971년부터 시작하여 감상단체회원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대학교원, 노동운동가, 영화비평가, 방송언론인, 극장경영자 등이 모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사들이 강사 및 지도자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크숍을 매년 1회 수일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이다. 그리고, 각지의 영화서클협회나 감상단체에서는

스태프나 희망회원을 파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상 다루어지는 기본강좌는 영화이론, 영화운동, 시나리오 쓰는 법, 영화를 즐기는 법, 영화를 읽는 법 등 영화에 대한 교양 및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영화대학에 참여한 각 지역의 스태프나 회원은 습득한 학습을 지역에 돌아와 영화활동에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다.³⁹ 2022년 현재에도 전국영연에는 전국각지의 32개의 영화감상단체가 가맹되어 있고 2022년 현재에도 전국영연이 주관하는 영화대학이, 오가야마(岡山)에서 49회째 9월23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다. 그리고 영화감독, 각본가, 배우, 변호사, 활동사진 번사 등이 지도자로서 참여하여 강연 등 학습기회가 공동감상과 함께 마련되었다.⁴⁰

이와 같이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기반이 된 감상단체에서는 영화의 사회적 활용, 외재적인 성과를 직접 추구하기 보다는 영화의 이해를 통하여 감상의 질을 높이고 영화문화의 향유가 가능한 관객의 육성, 영화관련한 지역문화리더의 육성에 일조한 것이다. 한편 현재 다양한 사회적 성과로 영화 및 영화관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례도 그 역사적 경위를 살펴어 보면 이와 같은 감상의 내재적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이 다른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변용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3) 커뮤니티 시네마의 사례 - 공동감상에서 사회적 가치창조로

① 커뮤니티 시네마의 학습문화창조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한 유형으로서 소규모 영화관, 일명 NPO영

³⁹ 張智恩, 2006, 앞의 논문

⁴⁰ 전국영연 사이트, <https://zenkokueiren.wixsite.com/zeiren/information> 2022년 11월 검색

화관, 시민영화관이 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른바 집시상영을 전전 하던 자주상영그룹이 중심이 되어 양질의 영화감상과 상영을 위한 상설관 건립을 위하여 시민들의 출자를 받으며 세워진 영화관이다. 영화애호가들이 중심이 된 이 그룹은 회원제도를 통하여 회원이 영화관운영에 불런티어로 참여하면서 무료영화감상의 특전을 받는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영화관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니가타(新潟)의 시네윈드, 홋카이도(北海道)의 시어터 키노, 나고야(名古屋)의 시네마 테크, 후가야시네마 등이 그 예이다.⁴¹ 또한 영화관은 자신들 고유의 자산과 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나고야 시네마 테크의 경우, 자주상영시대로부터 수집한 문헌을 모아 영화관에 6,000건이 넘는 소장자료를 구비한 영화도서관을 만들어 대출 및 열람에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영화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영화전용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찾아 대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며 영화관이용자에게 영화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시어터 키노도 410명의 시민주주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커뮤니티 시네마이다(자본금 한화로 약8억원). 이 영화관 역시 회원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원외에도 40명의 불런티어가 영화관 운영에서 접수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영화강좌를 운영하여 영화를 제작으로부터 상영, 배급, 홍보, 평론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영화의 이해를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영화관 홈페이지에 영화관 서포터로서 지역의 상가를 각각의 웹페이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시어터 키노 관계자와 지역만들기 관계자 23명이 별도의 NPO를 설립하여 영화관이 없는 마을에서 영화상영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비극장상영회의 출장개최, 사회인영화강좌운영, 청소년영상교육, 필름페스티벌 등에 협력하고 있다.⁴²

⁴¹ 張 智恩, 2003b. 앞의 논문

⁴² 시어터 키노 홈페이지 <https://www.theaterkino.net/about.html>

② 영화와 지역활성화

영화에 의한 지역활성화는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조직, 나아가 주민이 구성하는 실행위원회 형식의 비극장상영에서 영화의 공동감상으로부터 확장된다. 후가야 시네마와 같이 영화관이 사라진 지역에 영화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영화관운영주체가 되어 마을 주민의 집회거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와 연계하여 중심가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⁴³ 또한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탄광마을에 부정적 유산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으로 집객을 유도한 유바리(ゆうばり)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잘 알려진 바 있다.⁴⁴

그런데 커뮤니티 시네마의 역사적 고찰을 하면, 현재에까지 이르는 영화의 사회적 활용을 통한 외재적 사회문제해결에 도전하는 과정에는 선행된 과제로서 공동감상의 내실화 혹은 공동감상이 공유된 지역단위의 강력한 경험이 존재한다. 후가야 시네마의 경우, 영화관 설립 전부터 거의 1년에 걸쳐 마을의 관계자들이 영화학습회를 하였고 문화홀에서 대규모 상영회의 감동과 영화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 그리고 주된 리더의 영화인으로서의 삶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설립과정에서의 공동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영화관 설립 후에도 주민들이 영화관운영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감상 후 토크를 마련하여 공동감상에서 관객의 수행성을 강화하는 지역의 영화감상문화가 성숙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내재적 실재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거점이 생기면서 마을의 문제 즉 중심가 활성화나 지역재생에 대처하는 영화활동의 사회적 확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역시 석탄산업전성기에 노동자들의 여가 및 오락의 장으로서 영화관이 많았고 영화의 집단감상이 잦았던 지역의 영화문화유산이 축적된 곳에서 영화에 의한 지역재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용

⁴³ 후가야 시네마 사이트 <http://fukayacinema.jp/>. 2022. 12. 10. 검색

⁴⁴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https://yubarifanta.jp/>. 2022. 12. 10. 검색

이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유바리 지역에서는, 유바리 판타스틱 영화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화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이전의 중심가 거리를 영화간판으로 장식하는 마을 만들기가 있었고 영화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훗카이도 유바리를 배경으로 로케하는 영화인을 지원하는 필름커미션(Film Commission)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⁴⁵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나 사회적 가치의 창조가 외연적인 조건만들기의 성과로서 주어지기 보다는 지역내발적인 문화육구, 문화역량이 성장하는 가운데 외재적 과제해결에의 활동의 확장성이 실현된다는 논리이다.

다카사키영화제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는 다카사키의 커뮤니티 시네마 다카사키 시네마테크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어 왔다. 시네마테크는 2004년,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다카사키영화제를 운영하여 온 영화애호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좋은 영화를 지역에 소개하는 영화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설립의 발단이 되었다. 시네마 콤플렉스(cinema complex)의 획일적인 상영작품과는 다른,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작품을, 도쿄가 아니라 다카사키인 자신의 고향에서 감상하고 싶다는 취지이다.⁴⁶ 그런데 이와 같은 영화의 마을로 다카사키가 정착하여 커뮤니티 시네마 사업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데는 다카사키에 영화감상에 대한 지역 단위의 강력한 경험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다카사키는 일찍이 1945년 전후의 황폐함 속에서 문화를 통한 부흥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지방도시의 오케스트라로서는 선구가 된 다카사키시민오케스트라를 창설한 바 있다. 이후 몇 번의 개칭이 있었고 현재는 2013년 공익재단법인 군마(群馬)교향악단으로 자리잡고 다카사키음악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다카사키가 소재하는 광역단체 군마현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 있다.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⁴⁵ 張智恩. 「文化の普及と活用 of 社会的条件」(문화의 보급과 활용의 사회적 조건), 『文化経済学』, 2005.

⁴⁶ 金澤智. 「文化の創造の〈場〉としての地方都市—高崎の映画産業(1)—」(문화창조의〈장〉으로서의 지방도시-다카사키영화산업(1)), 『高崎商科大学コミュニティー・パートナーシップ・センター紀要』, 2017.

이야기 특히 설립초기의 투쟁의 이야기를 영화로 한 〈Koko ni izumi ari(ここに泉あり)〉가 제작되어 다카사키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균형발전과 군마 음악센터 건설 등 다카사키 문화창조에 기여한 영화 감상의 역사가 있다. 또한 30년 이상 시민이 주축이 되어 다카사키 영화제를 운영하여 온 공동감상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다카사키 시민은 영화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지역 문화가 있다.⁴⁷ 이러한 지역내재적인 문화는 지역단위에서 영화감상체험이 공유되고 그로 인한 감동이나 가치에 대한 자각을 공유한 집단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즉 관객의 육성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영화가 지역문화활성화, 지역세일, 지역재생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조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5. 마무리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 일본사회에서 상업영화관과 달리 공공상영의 노선을 가지는 소규모 영화관, 지역영화관, 비극장 상영관으로서의 커뮤니티 시네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커뮤니티 시네마는, 자주상영단체나 감상단체가 시민의 협력을 받아서 설립, 혹은 결성되어 지역의 영화문화성숙에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공동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숙하여 가는 영화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확장력을 펼쳐온 실태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영화문화의 창조가, 한편에서는 영화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즐기는 관객의 육성,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영화의 사회적 활용을 도모하는 영화시민의 성장에 의하여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두 가지의 성과가 관객의 수행성과 해방을 촉진하는 공동감상의 내

⁴⁷ 映画の街高崎 - 高崎映画祭30周年 (2016年02月25日)
 . http://www.takasakiweb.jp/city_cat/1657/ 2022.12. 20. 검색

실화, 지역의 영화문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 등과 같은 내재적 과정을 전제로 하여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의 공동감상을 통하여 성장체험을 해가는 사람들이, 「관객으로부터 영화시민으로」, 감상자로서의 「문화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나 미션을 담당하는 「사회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작은영화관, 지역영화관, 공공영화관, 또는 영화관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극장상영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영화의 보급과 감상을, 공급자의 논리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자율성과 주체적인 문화향유의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공간을 만든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감상에서 육성되는 자율성, 주체성, 자아 및 사회인식의 고양 등이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도 관객의 사회참여를 촉발하여 질적으로 다른 수행성과 능동성으로의 변용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을 조성하는 점이다. 바로 이 특징이 상업영화관과 달리 소규모 영화관이나 비극장상영이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관객을 영화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감상의 내실화와 영화의 사회적 활용은 다른 형태의 영화문화이지만,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영화문화를 지탱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양자를 가교하는 가운데 관객이 영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향유의 격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작은영화관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조건정비 뿐만 아니라 관객육성의 부분, 즉 공동감상의 내실화를 통하여 관객이 영화시민으로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갈 수 있는 영화문화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張智恩a. 「映画の共同鑑賞における共感の知覚化」(영화의 공동감상에서의 공감의 지각화). 佐藤一子編著. 『生涯学習がつくる公共空間』, 柏書房. 2003.
- ベラ・バラージュ 著, 佐々木 基一, 高村宏 訳 『視覚的人間』(시각적 인간), 岩波文庫, 1986.
- 山田和夫. 『映画で世界を読む』(영화로 세계를 읽다). 新日本出版社, 2001.
- Béla Balázs, 佐々木基一 訳(1959), 『映画の理論』(영화의 이론), 講談社, 1959.
- 교토영화서클협의회회편. 『교토영화서클협의회 50년의 발자취』, 1999.
- Ian Condry. Hip-Hop Japan - Rop and Paths of Cultural Globaliza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논문

- 권호창. 「트랜스미디어 향유와 문화정치적 관점에서의 대안적 수용자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Trans-(트랜스-)』, 2021.
- 김지연, 김도균, 권호창. 「인터랙티브 영화는 21세기의 새로운 서사극이 될 수 있는가? : <블랙미러: 밴더스내치>를 중심으로」, 『Trans-(트랜스-)』, 2022.
DOI : <https://doi.org/10.23086/trans.2022.12.09>
- 김선아. 「한국 지역극장의 현황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운동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015.
DOI : 10.17947/kfa..63.201503.004
- 김보경. 「사회적 창의성 중심의 사회과 수업탐색」, 『사회과교육연구』, 2010.
- 박동호.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 후카야 시네마(深谷シネマ)를 중심으로 -」, 『예술경영연구』, 2019.
DOI : 10.52564/JAMP.2019.49.149
- 윤수호. 「전쟁영화를 활용한 군 정신전력 강화 교육모델 연구」, 『정신전력연구』, 2021.
- 위경혜. 「한국전쟁과 부산의 극장 문화」, 『아시아영화연구』, 2021.
- 이미숙. 「한국 민주화운동과 '행동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1970~80년대의 경계를 넘는 연대와 예술운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21.

- 장지은. 「암묵지의 성인학습에 관한 사례고찰」, 『성인계속교육연구』, 2021.
DOI : 10.20512/kjace.2020.6.30.1
- 전병원. 「한국 커뮤니티 시네마 특성 연구 : 한국대안상영 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O), 2022.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227>
- 진상원. 「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영화활용 수업사례」, 『교육연구』, 47. 5-22. 2010.
DOI : 10.17253/swueri.2010.47..001
- 한달호. 「OTT 시대의 극장문화와 공간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연구 - 영화관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2022.
DOI : <http://dx.doi.org/10.20539/deadong.2022.100.08>
- 함주리, 김경표, 정민화. 「작은영화관 조성과 운영 매뉴얼(2016년개정판)」, 영화진흥위원회, 2016.
- 石垣尚志. 「地域の文化資源としての映画館の役割-ノルウェーの文化政策と映画館を事例に-」(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영화관의 역할-노르웨이의 문화정책과 영화관 사례), 『地域活性学会研究大会論文集』, 2020.
DOI : <https://opac.time.u-tokai.ac.jp/webopac/TC10003124>
- 堀越 まい, 佐藤 将之. 「コミュニティシネマにおける参画の様態からみたまちの居場所」(커뮤니티 시네마에서의 참여의 양태에서 본 마을의 쉼터), 『ジャーナル フリー』, 2019.
DOI: https://doi.org/10.20786/mera.22.1_47
- 金澤智. 「文化の創造の〈場〉としての地方都市—高崎の映画産業(1)—」(문화창조의 〈장〉으로서의 지방도시-다카사키영화산업(1)), 『高崎商科大学コミュニティー・パートナーシップ・センター紀要』, 2017.
- 青山大蔵. 「社会的付加価値を創出する映画館：厚木市における映画館再生とシニア・コミュニティ・リーダーとの協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관: 아츠기시에서 영화관재생과 시니어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동), 『季刊 政策・経営研究』, 2016.
- 岡本健一郎. 「映画芸術の振興のためには「上映」と言う「出口」のところへの支援が必要」(영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상영'이라는 '출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 『シネ・フロント』, 2004.
- 張智恩. 「NPOの専門性強化と学習交流の中間支援組織 - 公共上映の発展とコミュニティ

シネマ支援センター(NPO의 전문성강화와 학습교류의 중간지원조직-공공상영의 발전과 커뮤니티시네마 지원센터-), 『日本社会教育学会編, 『NPOと社会教育』, 日本社会教育, 第51集, 2007.』

張智恩 「映画文化の創造と公共上映の発展：戦後の社会教育における映画認識と普及活動の変化」(영화문화의 창조와 공공상영의 발전: 전후 사회교육에서 영화인식과 보급활동의 변화), 『東京大学 博士(教育学) 博士論文, 2006.』

張智恩 「文化の普及と活用の社会的条件」(문화의 보급과 활용의 사회적 조건), 『文化経済学』, 2005.

DOI : https://doi.org/10.11195/jace1998.4.4_11

張智恩 「文化創造のネットワークと地域活性化の可能性」(문화창조의 네트워크와 지역활성화의 가능성), 『関東都市学会年報』, 2004.

DOI : https://doi.org/10.24682/ksurb.6.0_49

張智恩b, 「日本における市民映画館の台頭と展開」(일본에서 시민영화관의 대두와 전개), 『映像学 : Japanese journal of image arts and sciences』, 2003.

張智恩 「社会教育における映画の普及と活用 : 1970年代以降の映画センターの活動に限定して」(사회교육에서 영화의 보급과 활용: 1970년대 영화센터활동에 한정하여), 『生涯学習・社会教育学研究』, 2002.

DOI : <https://repository.dl.itc.u-tokyo.ac.jp/records/25164>

張智恩 「映画鑑賞の教育的活用をめぐる考察 : 戦後改革期における映画鑑賞を中心にして」(영화감상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고찰: 전후개혁기의 영화감상을 중심으로), 『生涯学習・社会教育学研究』, 2001.

DOI : <https://repository.dl.itc.u-tokyo.ac.jp/records/25175>

기타

JAPAN COMMUNITY CINEMA CENTER <http://jc3.jp/wp/about/>. 2

Abstract

The collective appreciation of film and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 Community cinema in Japan

Jieun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Visiting Professor*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value creation process through the collective appreciation of film. It focuse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munity cinema in Japan.

In modern-day Japan, where digital video is easily accessible and the use of private, personalized media spaces widespread, a sub-culture of collective film appreciation is spreading, as more and more Japanese begin to attend movie screenings in non-commercial theaters. In addition, Japanese community cinema center has begun to integrate and support this viewing experience, which has come to be known as community cinema.

A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inema. First, local theater screening groups or appreciation groups cooperate with residents to establish and operate movie theaters. Second, these spaces create theoretical and practical participatory learning opportunities that foster understanding of and participation in film culture, through large-scale associations with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hat offer viewings. Third, based on collective appreciation, the film culture created through repeated joint viewings produces a social arena in

which community can be realized. In these communities film can be put to socially productive uses, such as problem solving.

Keywords

Film, collective appreciation, non-commercial theater, community cinema, Japan
